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2월 경기지수 하강으로 경기 회복세 주춤
- 美 연준, 15차례 연속 금리인상 단행

경영 노트

- 가이젠도조(改善道場)와 크로톤빌 연수원

사회 트렌드

- 퍼내이션(Funaton, Fun+Donation)
- 임플로이머(Emplomer, Employee+Customer)

저널 브리프

- 국제 통화 질서 변화

洗心錄

- 성인의 찌꺼기

□ 2월 경기지수 하강으로 경기 회복세 주춤

- 現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생산) 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6.4%) 자동차(-6.8%) 영상음향통신(-4.1%) 등 주력 업종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1998년 1월(-4.8%)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인 4.4%를 기록함
 - (소비·투자) 2월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해 1월 8.9%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전년 2월 감소세였음에도 불구하고 2.3% 늘어나는데 그침
 - (수출) 특히 2월 경상수지는 2005년 8월 이후 6개월 만에 7억 6,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됨
- 그 결과 경기 동행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7.6%에서 7.3%로 떨어지고 있어, 경기 회복의 둔화 수준을 넘어 경기 재침체(Double-Dip)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美 연준, 15차례 연속 금리인상 단행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버냉키의 연준 의장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3월 28일의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4.5%에서 4.75%로 0.25%p 인상했음
 - 미국의 정책 금리는 2004년 6월 이후에 열린 15차례의 연준 회의에서 매번 0.25%p씩 연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 미국 연방기준금리는 앞으로도 두세 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국내 콜금리도 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음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 상승 압력은 여전”하며 “물가안정의 저해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1월 성명서의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함
 - 향후 美 금리인상이 2~3차례 지속되고 유럽, 일본도 금리인상에 가세하면, 국내 경기의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자본의 급격한 해외이탈을 막기 위한 국내 콜금리 인상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

□ 가이젠도조(改善道場)와 크로톤빌 연수원의 현장중심 교육

-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음
 -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데 있어 핵심인재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재전쟁에 뛰어들고 있음
 - 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외부 영입을 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 가이젠도조(改善道場)는 ‘가이젠(改善)’으로 요약되는 ‘도요타 웨이’를 전파하는 교육 훈련 시설임
 - 현장학습(OJT)를 통해 ‘현장’과 ‘인재’ 중심의 도요타 웨이를 실천하고 있는 반면, 사내 교육시설인 ‘가이젠도조’를 통해 도요타의 경영이념인 ‘개선’을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음
 - 가이젠도조에서는 영업사원과 정비사들이 정비교육과 영업교육을 함께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임직원들이 함께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됨
- 크로톤빌은 현장중심적인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세션 C’라는 평가 시스템을 통해 변화 적응력과 리더십을 키우고 있음
 - GE 교육의 특징은 현장에서 실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당 2개 팀을 구성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철저히 현장 중심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 이로써 관료주의적이었던 기업을 민첩한 아이디어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시킴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중심적인 주제와 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천 위주의 교육 시스템 설계가 중요시 됨
 - 가이젠도조와 크로톤빌의 교육 시스템은 참석자 모두에게 스스로 문제 제기과 문제 해결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행동을 통한 학습(Action learning)’을 주축으로, 업무와 교육이 함께 연계되어 실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문제 제기과 해결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핵심임

□ 퍼내이션(Funation, Fun+ Donation)

- 최근 ‘거금’을 한꺼번에 희사하는 기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눔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쇼핑 구매 금액의 일부, 또는 카드 수수료나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영화 속 소품 자선 경매, 콘서트 수익금 일부 적립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됨
 - 이런 기부문화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결합시켜 ‘퍼내이션’(Funation)이라 부름
- 이러한 퍼내이션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뤄지고 있음
 - ‘G마켓’의 ‘후원쇼핑’ : G마켓에서 물건 판매자가 온라인 상에 상품을 등록할 때, ‘한 개 판매할 때마다 얼마를 어떤 단체에 판매하겠다’고 약정하고, 온라인 쇼핑몰은 이런 상품을 따로 모아 코너를 만들어 판매함
 - ‘인터파크’의 온라인 기부 장터 ‘아름다운 가게’ : 이용자들이 중고 물품을 등록하고 1%에서부터 판매금 전액까지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 ‘아름다운 가게’의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적립
 - ‘럽툰’(www.lovetoon.co.kr)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만화로 그려 한 달에 3~4건 정도 사이트에 올리고, 이 만화를 본 네티즌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1,000~5,000원씩 기부함

□ 임플로이머(Employomer, Employee+ customer)

- employee(고용인)와 customer(소비자)의 합성어로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인 동시에 고용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함
 - 통신 업체에서는 자사의 소비자들을 고용해서 텔레마케팅과 그밖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함
 - 임플로이머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콜드콜(cold call,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세일즈를 하는 것)을 걸어 전화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판매함
 -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이들의 통신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결제되는데, 결국 임플로이머는 부가 수입을 벌 수 있고, 기업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하게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음

□ 국제통화 질서 변화*

- (세계 단일 통화 논의 재개) 2006년 3월부터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산출·공표하기로 함에 따라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단일 통화 도입 논의가 재개됨
 - (세계 통화 질서 변화) 21세기 들어 세계 경제 질서는 유럽 경제권, 미주 경제권, 아시아 경제권 간의 3대 광역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화 질서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3極 통화 체제 발전: 국제통화 질서는 이미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와 갈수록 중심 통화로 부상되고 있는 유로화, 그리고 3월부터 공표되는 ACU를 계기로 3極 통화체제로 발전할 것임
 - (아시아 단일 통화 도입) 아시아지역의 단일 통화는 단계별 밴드제(Two or Three-way band system)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나, 제약 요인 또한 큼
 - 아시아 단일 통화 도입 과정: 아시아지역의 단일 통화는 아시아통화제도에 따라 각국 통화가치를 일정 범위 내로 수렴시킨 후 아시아중앙은행을 설치하여 경제 여건이 비슷한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단일 통화를 도입 확대시키는 단계별 밴드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 제약 요인: 유럽과 달리 아시아 국가 간 경제력 차이가 커 단일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국 간의 환율, 금리, 물가, 재정 수지면에서 경제적 수렴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아시아 단일 통화 도입 영향) 아시아 단일 통화가 도입될 경우, 환율제도의 변화를 통해 세계 단일통화 창출 가능성이 커질 것임
 - 환율제도 변화: 아시아 지역 단일 통화가 도입되어 국제통화질서가 3극 통화체제로 재편될 경우 환율제도는 달러화와 유로, 아시아 단일 통화 간의 환율 움직임에 상하 변동 폭이 설정되는 목표 환율대(Target Zone)가 도입될 가능성이 큼
 - 세계 단일통화 창출 가능성: 목표 환율대 도입으로 3극 통화의 가치가 일정 범위 내로 수렴될 경우 세계 단일통화가 창출될 수도 있음
- (시사점) ACU 공표를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 질서와 국제통화제도에선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할 것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5.04.0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성인의 찌꺼기

말이나 글로서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므로 책만으로 깊은 지혜를 얻기는 어렵고, 책으로부터 제대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체험과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다. <장자(莊子)>의 『천도(天道)』 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제(齊)나라 환공(桓公, 춘추시대 다섯 패자인, 춘추오패의 한 사람)이 대청 위에서 글을 읽고, 목수인 윤편(輪扁)이 대청 아래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다. 윤편이 망치와 끌을 놓고 올라와 환공에게 물었다.

“읽고 계신 책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성인의 말씀이다.” 환공이 답했다.

“그 성인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아니다. 옛날 분으로 지금은 살아 계시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거기에 찍어진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 같은 것이군요.”

“찌꺼기라구? 목수인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목수가 말했다.

“소인은 그저 오랜 생활의 경험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수레바퀴 축의 구멍은 너무 크게 깎아도 못쓰고, 너무 작게 깎아도 안되는 법입니다. 굴대와 구멍이 꼭 들어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호흡을 잘 맞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말로써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절대로 우연히 맞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인이 자식에게 그 비결을 깨치게 해주려고 하나 좀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일흔이 되도록 여지껏 이 일을 소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도 참으로 중요한 대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죽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왕께서 읽고 계신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 같은 것임에 틀림이 없을 줄 아옵니다.”

“벗의 곤경을 동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벗의 성공을 축복하려면 남다른 성품이 필요하다.”

- 오스카 와일드(1854~1900) : 아일랜드 소설가